

공연예술 공공지원과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 :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ublic Support for performing art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Adhere to Art Activitie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김초하¹

Cho Ha Kim¹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공공지원을 경험한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이 예술인의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공동체의식이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공공지원,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탐색적 수준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회수하여 얻은 자료는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결과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4,5는 채택되었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과 주관적 웰빙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 또한 채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공공지원과 주관적 웰빙 그리고 공공지원과 예술지속의도의 사이에서 각각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7,8도 채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공공지원이 전반적으로 예술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공공지원과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탐색적 연구로서 이론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에 예술인의 심리적 기제를 탐구하고자 한 시도가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주제와 결과는 새로운 이론적 확장 모델을 구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 공연예술, 공공지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

Abstract

This study verifies whether public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sychological sense of the community of artists for performing artists who have experienced public support, and whether the

¹Department Art & Cultural Management, Sangmyung Univ.,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llkimchohall@naver.com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NRF-2021S1A5B5A17048041)

Received(August 22, 2022), Review Result(1st: September 10, 2022), Accepted(December 12, 2022), Published(December 31, 2022)



© 2022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continue with art as a vocation.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pport,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continue pursuing art as a vocation was further investigated at an exploratory level.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anuary to March 2022 for professional artists over the age of 20 who are engaged in performing ar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Amos 20.0.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hypotheses 1, 4, 5 were adopted, which hypothesized that public support would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continue pursuing art as a vocation. In addition, hypotheses 2 and 3, which hypothesized that a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would have a positive (+)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continue pursuing art as a vocation and hypothesis 6, which hypothesized that subjective well-being would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ir intention to continue pursuing art as a vocation were both adopted. Lastly, hypotheses 7 and 8 were also adopted, which hypothesized that they would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public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between public support and intention to continue pursuing art as a vocation, respectively. Therefore,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indicating public support is generally perceived positively by artist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ave theoretical value as an exploratory study that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pport,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continue pursuing art as a vocation as perceived by performing artists. It is noteworthy that there was a lack of attempts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artists in the past, and the subject and results of this study may offer meaningful insight in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theoretical extension model.

Keyword : performing arts, Public Support,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Well-Being, Intention to Adhere to Art Activities

1. 서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수준 요인 중 ‘타 분야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이 74.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는 전업 55.1%, 겸업 44.9%로 나타났고,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겸업)’를 조사한 결과 ‘현재 예술활동에서 낮은 소득’이 42.6%,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이 33.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와 2018년에 보고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예술인이 예술활동으로만 생계유지를 하기 힘든 환경이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현황은 예술인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미 서광 [2]과 김태모 [3]의 연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바 있으며, 김현종 [4]과 김초하 [5]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하였다.

공연예술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직접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이탈이 없어야 하며, 더 나아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예술과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 또한 예술인들이 애착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높아야 한다.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공동체 의식은 예술 환경과 생활여건이 좋고 경제 활

성화가 잘 이루어질 때 높아질 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고양된 공동체의식은 예술인들의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효과적인 정부의 지원은 예술인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동시에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노미양 [6]은 공공지원이 사업의 기회 제공과 커뮤니티 공간의 제공,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체 내 개별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들 간의 관계망이 두터워 지는데 기여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예술학에서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이 서로 다른 동료들과 협력·상호작용하여 집단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 상호의존성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협력과 공동체의식이 증진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예측이 가능하며, 특히 타인과 협업하는 환경에서 종사하는 공연예술인의 공동체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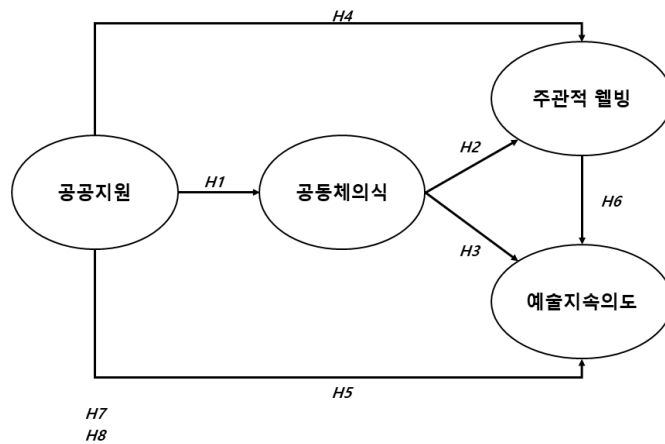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까지 공연예술인들의 공동체의식을 탐구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과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지원정책이 예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탐색적 수준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공지원이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공동체의식이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지원,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고찰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 H1. 공연예술 공공지원은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공동체의식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공동체의식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공연예술 공공지원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공연예술 공공지원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주관적 웰빙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공동체의식은 공공지원과 주관적 웰빙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H8. 공동체의식은 공공지원과 예술지속의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2.2.1 공공지원

본 연구에서 공공지원은 김초하 [5]의 연구에서 예술인이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한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하며, 사회적 지지 척도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박지원 [7]이 개발하고, 김미정 [8]이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김초하 [5]의 연구를 참고 하였으며, 총 22문항을 설정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McMillan & Chavis [9]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속감, 영향관계, 욕구충족, 친밀감의 공유 등으로 이루어진 예술인의 공통된 집단의식 상태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측정척도는 McMillan & Chavis [9], Peterson & Speer & McMillan [10], 김경준 [11], 박가나 [12], 장수지 & 김수영 & Kobayasi [13]의 측정 문항을 고동우 [14]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총 8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3 주관적 웰빙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인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등과 같은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주관적 웰빙 으로 정의한다. 3가지 하위요인 중 삶의 만족은 Diener & Emmons & Larsen Griffin [15]이 개발하고 조명한·차경호 [16]가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이정순 [17]이 사용한 도구를 참고하였고,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척도는 Warr & Barter & Brownbridge [18]의 도구를 류연지 [19]

가 수정·보완하고 이정순 [17]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총 15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4 예술지속의도

본 연구에서의 지속의도는 예술활동을 일정기간 유지 또는 오래 계속하는 성질로써 예술지속의도로 정의한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하며, 측정척도는 최영창·장영심 [20], 서희진 [21]과 이동준 [22]의 측정척도를 류기형 [23], 오수학·송윤경·김현정·허미향·조정환 [24]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김초하 [5]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총 6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조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공공지원의 수혜를 경험한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공공지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용, 연극,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 중 정부지원을 경험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20부를 배포하여 17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하여 얻은 자료는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실증분석

3.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연령, 학력, 전공분야, 활동경력, 연간평균소득, 거주지역, 성별, 협회가입여부 등의 기술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178)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26	14.6	학력	중졸	1	0.6
	30대	69	38.8		고졸	17	9.6
	40대	44	24.7		대졸	85	47.8
	50대	23	12.9		대학원재학	9	5.1
	60대이상	16	9.0		대학원 졸업	66	36.9

전공 분야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30	16.9	활동 경력	2년미만	6	3.4
		33	18.5		2-3년	5	2.8
		57	32.1		4-5년	11	6.2
		58	32.5		6-7년	16	9.0
					8-9년	13	7.3
					10년이상	127	71.3
연간 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25	14.0	거주 지역	서울	77	43.3
	500만원미만	44	24.7		인천/경기	54	30.3
	1천만원미만	38	21.3		대전/충청	12	6.7
	2천만원미만	30	16.9		광주/전라	9	5.1
	3천만원미만	19	10.7		대구	3	1.7
	4천만원미만	13	7.3		경남	5	2.8
	5천만원미만	2	1.1		강원	1	0.5
	5천만원이상	7	3.9		제주	17	9.6
성별	남자	82	46.1	협회 가입 여부	가입	120	67.4
	여자	96	53.9		미가입	49	27.5
					기타	9	5.1

3.2 측정척도의 단차원성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신뢰도평가에 앞서 문항분석법에 의하여 각 개념별로 측정문항의 전체 합산치와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들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지원의 하위요인에서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지지 그리고 평가적지지 항목에서 각각 1개의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공동체의식에서는 3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 더불어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요인별 각각 .930(정서적지지), .931(정보적지지), .687(물질적지지), .877(평가적지지), .855(공동체의식), .921(긍정정서), .860(부적정서), .853(삶의만족), .965(예술지속의도)로서 내적 합치도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라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척도의 항목에 대하여 순화과정을 실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서 각 척도의 단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표 2]와 같다. 이 분석과정에서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공공지원’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관적 웰빙’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은 긍정정서, 부적정서, 삶의 만족으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에서 각각 1개의 항목을 제거한 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2] 참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GFI, NFI, CFI 계수가 0.90이상으로 제시되고 있어 적합도 지수들이 매우 만족스러운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척도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의 단차원적 요인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척도의 단차원성

[Table 2] Uni-dimensionality of measurement scales

구성개념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최초항목	최종항목	χ^2	p-value	GFI	AGFI	RMR	NFI	CFI
공공지원	4	4	.812	.666	.998	.988	.002	.998	1.000
공동체의식	5(최초)		22.830	.000	.945	.835	.033	.940	.952
	4(최종)		6.007	.050	.984	.918	.970	.970	.979
주관적 웰빙	3	3	.000	-	1.000	-	.000	1.000	1.000
예술지속의도	6(최초)		74.303	.000	.898	.762	.013	.944	.950
	5(최종)		4.810	.439	.989	.967	.004	.995	1.000

3.3 측정모델의 평가

Anderson & Gerbing [25]이 제시한 2단계 접근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지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그리고 예술지속의도를 포함하는 측정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Amos 20.0으로 추정하였다.

[표 3] 측정모델의 평가결과

[Table 3] Evaluation result of the measurement model

구성개념	구성개념간 상관관계a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1. 공공지원	1.000			
2. 공동체의식	.370	1.000		
3. 주관적 웰빙	.551	.626	1.000	
4. 예술지속의도	.638	.611	.768	1.000
Cronbach's α	.894	.855	.808	.965
구성개념 신뢰도	.973	.900	.946	.930
AVEb	.902	.695	.854	.731
모델 적합도	$\chi^2=115.813(p=.106)$, $df=98$, $\chi^2/df=1.182$, $GFI=.928$, $AGFI=.900$, $RMR=.014$, $NFI=.919$, $CFI=.986$, $RMSEA=.032$			

주 : a : 상관계수의 표준오차 추정구간(two-standard error interval estimate)은 1을 포함하지 않음.

b :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GFI 값이 .90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되는 측면도 고려되어 본 연구의 측정모델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15.813(p=.106)$, $df=98$, $\chi^2/df=1.182$, $GFI=.928$, $AGFI=.900$, $RMR=.014$, $NFI=.919$, $CFI=.986$, $RMSEA=.032$). 모든 척도의 Cronbach α 값이 .808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신뢰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구성개념 신뢰도 역시 .9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척도 분산 중 특성(trait)에 설명되는 비율을 뜻하는 평균분산

추출 값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공공지원은 .902, 공동체의식은 .695, 주관적 웰빙은 .854, 예술지속의도는 .731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 척도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또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5][26].

한편, 척도의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2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27]. 이 평가에서 [표 3]의 6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AVE값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척도는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4 연구모델의 평가 및 가설의 측정

3.4.1 공공지원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가설 검증(H1)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대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이론변수들간의 경로계수와 c.r값을 확인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예술분야 공공지원은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1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370을 나타내었고, c.r값은 4.228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3.4.2 공동체의식과 주관적 웰빙에 관한 가설 검증(H2)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2를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489를 나타내었고, c.r값은 5.503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4.3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에 관한 가설 검증(H3)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3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203을 나타내었고, c.r값은 2.199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3.4.4 공공지원과 주관적 웰빙에 관한 가설 검증(H4)

본 연구에서는 공공지원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4를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370을 나타내었고, c.r값은 4.544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3.4.5 공공지원과 예술지속의도에 관한 가설 검증(H5)

본 연구에서는 공공지원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5를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301을 나타내었고, c.r값은 3.709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5는 지지되었다.

3.4.6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에 관한 가설 검증(H6)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웰빙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6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475를 나타내었고, c.r값은 4.268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6은 지지되었다. 또한, r^2 에서 볼 때 내생변수인 공동체의식과 주관적 웰빙 그리고 예술지속의도는 13.7%, 51.1%, 68.0%가 각각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7 공공지원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가설 검증(H7)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공공지원은 공동체의식을 통해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7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검정을 실시한 후, 실제 유의성 검증은 Two-tailed Significance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측정결과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간접효과 계수 값은 .181($p=.002$)로서 95%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고.

3.4.8 공공지원과 예술지속의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가설 검증(H8)

[표 4] 제안모델의 추정결과

[Table 4] Estim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경로(가설)	직접효과	총효과	C.R	p-value
공공지원 → 공동체의식(H1)	.370	.370	4.228	.000***
공동체의식 → 주관적 웰빙(H2)	.489	.489	5.503	.000***
공동체의식 → 예술지속의도(H3)	.203	.435	2.199	.028*
공공지원 → 주관적 웰빙(H4)	.370	.551	4.544	.000***
공공지원 → 예술지속의도(H5)	.301	.638	3.709	.000***
주관적 웰빙 → 예술지속의도(H6)	.475	.475	4.268	.000***
공공지원 → 공동체의식 → 주관적 웰빙 (간접효과 : H7)	.181			.002**
공공지원 → 공동체의식 → 예술지속의도 (간접효과 : H8)	.337			.001**
r2 (공동체의식) = .137, r2 (주관적 웰빙) = .511, r2 (예술지속의도) = .680				
모델 적합도	χ²=115.813(p=.106), df=98, χ²/df=1.182, GFI=.928, AGFI=.900, RMR=.014, NFI=.919, CFI=.986, RMSEA=.032			

주 : ** : $p < .01$, *** : $p < .001$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공공지원은 공동체의식을 통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8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검정을 실시한 후, 실제 유의성 검증은 Two-tailed Significance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측정결과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예술지속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계수 값은 .337($p=.001$)로서 95%신뢰구간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고.

4. 결론

본 연구는 공공지원을 경험한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이 예술인의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공동체의식이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공공지원,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탐색적 수준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무용, 연극,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 중 정부지원을 경험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데이터 중 총 178부를 공공지원과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그리고 예술지속의도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연예술분야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370으로 나타났고 c.r값은 4.228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공동체의식이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489로 나타났고 c.r값은 5.503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공동체의식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203으로 나타났고 c.r값은 2.199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넷째, 공공지원이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370으로 나타났고 c.r값은 4.544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공공지원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301로 나타났고 c.r값은 3.709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여섯째, 주관적 웰빙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475로 나타났고 c.r값은 4.268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일곱 번째, 공공지원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7에 대한 분석결과,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간접효과 계수 값은 .181($p=.002$)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 공공지원과 예술지속의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가 있

을 것이라는 가설 8에 대한 분석결과, 공공지원이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예술지속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계수 값은 .337($p=.001$)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공지원과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탐험적으로 시도되는 연구로서 예술학 분야의 새로운 이론적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공공지원의 수혜 대상으로서 공연예술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종래에는 바람직한 지원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공공지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측정 척도는 본질적으로 공연예술인이 지각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패턴을 파악하면 보다 타당하고 체계적인 공연예술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연예술 공공지원에 대한 후속연구가 가능하며, 이를 기초로 공연예술 공공지원정책 개선의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지원 형태나 프로그램 등 기관별로 대입이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대상자가 얼마나 대표적으로 추출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모두 활용하였으나, 설문 시점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예술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는 점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주로 온라인 설문에 의존했다는 점은 한계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나,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변수의 개념이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구성개념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도니 변수가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나 측정척도가 완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지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연구모형의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과 관련된 변수 간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변수들을 포괄한 모델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공지원과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탐험적으로 접근한 초기의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References

- [1]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21 Artist Surve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jong-si, Republic of Korea, January 2022. [Online]. Available: <https://policydb.kcti.re.kr/#/surveyArtistsDetail?bbstypecd=3003011&postno=200647&poststatcd=1300>.
- [2] K. Seo, “A Study on the Delivery System of the Support Policy in Culture and Art”,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8.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1231438>.
- [3] T. M. Kim, “A Qualitative Study on Lived Experience of Regional Arts Subsidy”,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Cultural Programming, The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 Theory, Kyung S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9.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5074017>.
- [4] H. J.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and Self-esteem Have on Life Satisfaction of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Artists Dispatching Support Project”,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8.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4906435>.
- [5] C. H. Kim, “Analysis of the Effects of Public Support for the Arts and Culture : focus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bjective well-being, and adherence to art activities”,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1.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5767568>.
- [6] M. Y. Roh, “The Impact of Public grants on the Capacity and Networking of Urban community organisations : A Case of Yeomni-dong community in Seoul”, Master's thesis,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6.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4226854>.
- [7]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985.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791002>.
- [8] M. J. Kim,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Hope and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6.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4441772>.
- [9] D. W. McMillan, 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no. 1, January 1986, pp. 6-23, doi: 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40103>3.0.CO;2-I.
- [10] N. A. Peterson, P. W. Speer, D. W. McMillan, “Validation of a 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 Confirmation of the principal theory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6, no. 1, January 2008, pp. 61-73, doi: 10.1002/jcop.20217.
- [11] K. J. Kim, “A Study on the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in Korea”,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Major in Rural Social Eng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998.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4462284>.
- [12] G. N. Park,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on a sense of community”,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8.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1565026>.

- [13] S. J. Chang, S. Y. Kim, E. Kobayashi, "Cultural Disposition and Sense of Community in Different Age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8, no. 2, March 2014, pp. 1-24, doi: 10.21193/kjspp.2014.28.2.001.
- [14] D. W. Ko, "What Makes People Overcome COVID-19 Pandemic?: Vulnerable or tolerable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vol. 21, no. 3, August 2020, pp. 399-424, doi: 10.21074/kjlcap.2020.21.3.399.
- [15] E. Diener, R. A. Emmons, R. J. Larsen,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June 1985, pp. 71-75, doi: 10.1207/s15327752jpa4901_13.
- [16] M. H. Cho, K. H. Cha, *Cross-Country Comparison on Quality of Life*, Seoul: Jipmundang, 1998.
- [17] J. S. Lee, "Influences that tourism activity may have on tourism/leisure satisfaction and sense of well-being",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Daeg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4.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0114933>.
- [18] P. Warr, J. Barter, G. Brownbridge, "On the independence of negative and posi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3, March 1983, pp. 644-651, doi: 10.1037/0022-3514.44.3.644.
- [19] Y. J. Ryu, "The effect of personality and desire level on subjective well-being",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996.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757621>.
- [20] Y. C. Che, J. Y. S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Youth Volunteer Activities in terms of Continuity, Motivations and Inten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9, no. 2, May 2008, pp. 87-109.
- [21] H. J. Seo, "The Relationships among Physical Activity Needs, Satisfaction of General Physical Education, and Intention to Continuance of Physical Activities in the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n Sociology of sport*, vol. 16, no. 1, June 2003, pp. 93-109.
- [22] D. J.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Enjoyment source of General Physical Education and Intention to Continuance of Physical Activities i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5, no. 3, May 2006, pp. 131-140.
- [23] K. H. Ryu, "A Study on the Impact to Volunteering Satisfaction and Retention Will of Job Characteristic Factors", *Social Welfare Policy*, no. 35, December 2008, pp. 221-243, doi: 10.15855/swp.2008..35.221.
- [24] S. H. Oh, Y. K. Song, H. J. Kim, M. H. Her, J. H. Cho, "The Construct-Related Validation of An Exercise Adherence Questionnaire", *Journal of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vol. 2, no. 2, December 2000, pp. 39-52.
- [25] J. C. Anderson, D. 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no. 3, May 1988, pp. 411-423, doi: 10.1037/0033-2909.103.3.411.
- [26] R. P. Bagozzi, Y. Yi,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16, no. 1, March 1988, pp. 74-94, doi: 10.1177/009207038801600107.
- [27] C. Fornell,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February 1981, pp. 39-50, doi: 10.1177/002224378101800104.